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소매절제폐엽절제술과 폐엽절제술의 성적비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²

조정수¹ · 김형렬¹ · 한국남² · 강창현² · 김영태² · 전상훈¹ · 성숙환¹ · 김주현²

목적

전폐절제술은 폐엽절제술에 비해 수술 사망률 및 합병증이 높다. 소매절제폐엽절제술은 수술 방법이 복잡하나, 폐실질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종양학적인 측면에서 전폐절제술과 비교할만한 성적을 보인다는 보고가 많다. 하지만 암절제술로서 소매절제폐엽절제술과 폐엽절제술의 성적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있어서 폐엽절제술, 전폐절제술, 소매절제폐엽절제술의 임상 성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 중, 축소수술이나 중격동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137명을 제외한 1262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쌍)폐엽절제술, 전폐절제술, 소매절제폐엽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을 분석하고, 무병생존률과 생존률을 비교하였다.

결과

(쌍)폐엽절제술을 시행한 환자(group 1)는 1047명, 전폐절제술을 시행한 환자(group 2) 131명,

소매절제폐엽절제술을 시행한 환자(group 3) 84명이었다. Group1/Group2/Group3에서 IA병기는 286/9/15명, IB병기는 303/23/23명, IIA병기는 38/9/11명, IIB병기는 148/26/14명, IIIA병기는 207/43/13명, IIIB병기는 47/12/7명, IV병기는 18/9/1명이었다. 수술로 인한 사망률은 Group 1에서 1.7%(18명), Group 3에서 2.3%(2명)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Group 2는 8.3%(11명)으로 나머지 두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수술 후 합병증은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전체병기에서 Group 1이 Group 2보다 5년 무병생존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log rank 0.04), Group 1과 Group 3사이에 차이가 없었다(log rank 0.79). 전체병기에서 5년 생존률은 Group 1이 Group 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log rank 0.00), Group 1과 Group 3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log rank 0.64). IIIA병기에서 Group1이 Group3보다 유의하게 무병생존률에 높았으나 (0.03), 생존률은 차이가 없었으며 (0.19), Group2와 group3간에는 무병생존률과 생존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0.24).

결론

소매절제폐엽절제술은 전폐절제술보다 수술 사망률이 낮았으며, 비소세포폐암 치료 술식으로 폐엽절제술과 비교할 만한 무병생존률과 생존률을 보였다.